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실현

제 8대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개원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원 한명 한명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청정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 발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새만금개발청을 직접 방문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조기개발 노을대교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과 같은 지역 SOC기반 확충 및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성명서 및 건의문 발표 등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지역 발전에 더욱 큰 원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상생과 협력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감시'의 권한에 책임을 다하며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의 비전을 실현한 제8대 부안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운영위원회



지자행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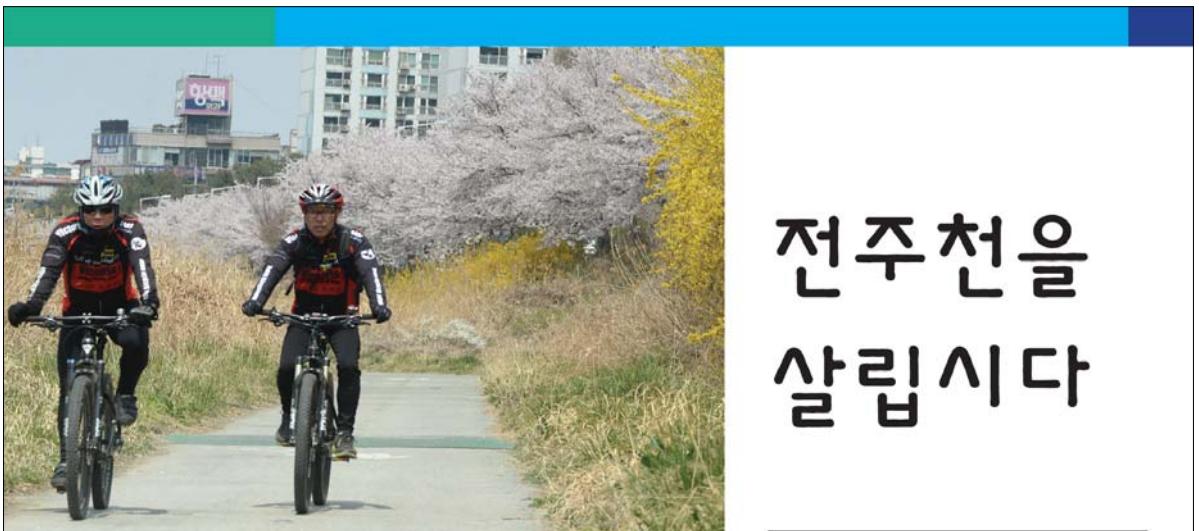


산업건설위원회

군단위 최초 '의회 기본조례' 제정
종합적·체계적 의회 운영 규정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결의안
대중교통 관련 법 개정 이끌어내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지역 발전 더 큰 원동력 작용-부안 변산~고창 해리-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을대교 건설 촉구 결의 9.1.(화)

부안군의회 의원 일정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운영위원회… 정례회 7회, 임시회 24회 335 일간 회기 운영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기간 중 조례안 234건, 동의안 77건 등 총 46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이중 적극적인 군민 의견 반영 및 차지법규 연구를 통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규칙안이 42건으로 역대 의회 중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 단위 최초로 '부안군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규정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례계획 보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과 기준 1일에서 2일로 군정질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고창군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의회 최초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했으며 의정활동 전문적 지원을 위한 관련 분야 경력자 1명을 일반인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130건, 동의안 43건, 건의안 4건 등 총 201건 의안 논의·의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노인복지 증진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심의해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중교통에 관한 법 개정을 이끌어내 격포-위도 간 여객선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 부안군의 주요 쟁점인 새만금에 대한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뜻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군민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부안=김석진 기자